

히치콕을 만나는 방법

프랑수와 드뤼포 지음 「히치콕과의 대화」

어떤 사람이 담배를 입에 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나는 그가 이미 히치콕을 만났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눈을 뜨고 손을 머리위로 뻗어 더듬거린다. 손끝에 느껴지는 땀들땀들한 책의 느낌,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을 깜빡거리다. 「히치콕과의 대화」(곽한주 외 옮김, 한나래). 요즘들어 구입한 이 책의 느낌을 말하자면, “이미 나에게 약 3톤 가량의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했다”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237페이지에서 나는 ‘염소와 아래서’라는 히치콕 영화의 라스트 15분이 상당히 약하고 작위적이었다는 히치콕 스스로의 고백을 듣다가 239페이지에 있는 잉그리드 버그먼의 얼굴을 보게 되자 더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고 있다. 또다시 잉그리드 버그먼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 아름답고도 슬픈 책, 누벨바그의 거장 드뤼포와 히치콕의 대화로만 구성된 「히치콕과의 대화」에서 잉그리드 버그먼을 찾지 못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책 131, 172, 239페이지에 속속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나는 239페이지에 나오는 잉그리드 버그먼만이 히치콕적인 분위기를 풍긴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 책을 보고 있노라니 “히치콕을 만나고 싶어” “히치콕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그러나 알다시피 히치콕은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히치콕을 만나는 방법은 그의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히치콕과의 대화」 같은 책을 통해 만나는 수밖에 없다.

내가 히치콕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된 건 1980년 5월. 그러나 이미 한 달 전에 히치콕은 세상을 떠났다. 물론 내가 이전에 히치콕을 알았다 하더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으리라. 성인이 된 지금 만약 히치콕이 살아 있어서 그를 만난다 한들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사실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히치콕이 아니다. “히치콕적인 그 어떤 것”이지 절대 히치콕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왜 나는 히치콕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히치콕이라고만 하는 걸까? 그건 바로 히치콕 스스로가 히치콕적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뭔가 거창하고 훌륭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다. 나는 드뤼포와 히치콕의 대화를 읽어나가면서 히치콕에게서 그 사실을 깨달았다. “히치콕이야말로 가장 히치콕적”이라는 것을.

나는 책을 덮는다. 배불뚝이 히치콕의 사진을 표지로 한 책이 무어라고 소리치른다. “나는 히치콕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히치콕적인 삶의 진리를 전파해 히치콕의 광신도가 되게 할 것이며, 히치콕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히치콕을 딛고 일어서는 발판이 될 터이니...”

박준용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0-36

“그 뜨겁던 불꽃이 다 어디 갔나”

김지하 시집 「황토」

나는 김지하의 시를 밤새도록 공책에 베껴 가며 읽었던 세대는 아니다. 고등학교 때였던가, 해금과 함께 ‘창작과비평사’에서 재간행돼 나온 그의 시집 「타는 목마름으로」가 서가에 꽂혀 있는 것을 별 생각 없이 사 읽었으니까. 다 읽고 나서 한 친구에게 빌려주며 일독을 권했다가 “무슨 시가 이래? 순 칼이며 피며... 이렇게 끔찍한 게 정말 좋으나?” 하는 편지를 듣고 떠먹혀졌다.

그후 대학에 들어가서 ‘풀빛’에서 나온 「황토」를 다시 사 읽었다. 이미 「타는 목마름으로」 1부에서 읽은 시들을 모아놓은 시집이었지만, 책 표지의 음울한 판화가 시의 분위기와 제법 어울려서 꼭 한 권 갖고 싶었던 때문이었다. 「황토」를 가방에 넣고 돌아온 날 밤, 「비너산」이라는 시를 읽으며 “삶은 탁한 강물 속에 빛나는/푸른 하늘처럼 건디기 어려운 것”, 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았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이제 ‘솔’에서 간행된 「황토」를 다시 읽는다. “황토길에 선연한/핏자욱 핏자욱 따라/나는 간다 예비야/네가 죽었고/지금은 검고 해만 타는 곳”... 언젠가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끔찍하게’ 아름다운 시들이, 많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온 지금까지 생생히 살아 있다. 「애린」을 비롯한 그의 후기 시들이 「황토」만큼 아름답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쨌든 「황토」는 드물게 아름다운 시집이니까. 그것을 쓴 김지하 역시 드문 시인이니까.

“황토에 실린 시편들을 쓰던 젊은 날을 생각하면 문득 눈앞이 아득해진다./내 마음속에 정말로 산 불꽃 같은 것이 있어서 나를 태우고 또 태우곤 했다. 핏빛 같았고 칼날 같았고 황량했으면서도 어귀쳤다. 깊은 목마름이 있어서 아귀처럼 샘물을 찾아 헤매던 기억이 난다./샘물, 그렇다. 그것이 그때 불꽃 뒤에 숨겨져 있었다. 여리고 부드럽고 맑고 잔잔한 것. 이것을 찾아 헤매온 긴 세월이 나를 이것 닮게 했나보다./그 뜨겁던 불꽃이 다 어디 갔나?/빈 마음자리에 흰 낫달이 뜨는 요즈음 생각한다. 그 불꽃은 샘물 속에 달맞이꽃으로 피었다고. 숨겨져서.”

이번 「황토」의 자서(自序) 전문이다. 샘물 속에 달맞이꽃으로 핀 그의 ‘뜨겁던 불꽃’이 그리워서, 그리고 붉어진 눈으로 그 ‘불꽃’을 새벽까지 지켜보았던 내 어린 날들이 그리워서 다시 이 책을 읽었나 보다.

현지영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22-3

※의 차별성은 이렇습니다

<p>이런 책을 만들었습니다</p> <p>소 설 ▶ 『오에 켄자부로 대표작선집』 『길을 잃어야 새 길을 만난다』</p> <p>인문 과학 ▶ 『한국인의 조형 의식』 『한국인, 조센징, 신조센징』</p> <p>미술 서적 ▶ 『레터링의 역사』, 『선물 포장』, 『포장디자인』</p> <p>대학 교재 ▶ 『몬테소리 교육의 이론과 실제』</p> <p>무 협 지 ▶ 『녹정기』, 『춘추필』</p>	<p>가 격 사 양 (단행본 기준)</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신 국 판</td> <td style="text-align: center;">편집 (사식 포함)</td>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5px;">인화지 출력시 5,500원 필름 출력시 6,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 식</td>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5px;">인화지 출력시 3,000원 필름 출력시 4,000원</td> </tr> <tr>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4×6배판</td> <td style="text-align: center;">편집 (사식 포함)</td>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5px;">인화지 출력시 8,000원 필름 출력시 8,5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 식</td>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5px;">인화지 출력시 5,000원 필름 출력시 6,000원</td> </tr> </table>	신 국 판	편집 (사식 포함)	인화지 출력시 5,500원 필름 출력시 6,000원	사 식	인화지 출력시 3,000원 필름 출력시 4,000원	4×6배판	편집 (사식 포함)	인화지 출력시 8,000원 필름 출력시 8,500원	사 식	인화지 출력시 5,000원 필름 출력시 6,000원	<p>혹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 없습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QUARK을 통한 잡지나 사보 레이아웃 ② Photoshop, Illustrator, FreeHand, NoteWriter, Excel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③ Fontographer를 이용한, 나오지 않는 한자 및 지원되지 않는 수식의 해결 능력 ④ 매킨토시뿐 아니라 IBM 워드프로세서에 대한 이해 ⑤ 2급 이상의 타자 속도 ⑥ 교정·교열 및 대지 작업과 제작에 대한 이해
신 국 판	편집 (사식 포함)		인화지 출력시 5,500원 필름 출력시 6,000원									
	사 식	인화지 출력시 3,000원 필름 출력시 4,000원										
4×6배판	편집 (사식 포함)	인화지 출력시 8,000원 필름 출력시 8,500원										
	사 식	인화지 출력시 5,000원 필름 출력시 6,000원										

☞ **※은 이런 경우에 더욱 효율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

① 활판을 옵셋으로 바꾸는 경우	② 흑백 사진이 많은 정기 간행물	③ 전집류 출판
④ 장편 무협소설	⑤ 기타 대량의 출판물	⑥ 시한이 촉박한 원고

McIntosh 경력 3년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실력을 가진 분을 새 가족으로 모십니다. 성별, 연령, 신체장애 등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